御賜花



직물놀이공방

서사화 피는 북촌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가 꽃 피는 북촌의 공공한옥에는 자신만의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는 예술인도 있다. 우리 고유의 것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생활예술을 상기시키고 창작을 가미한 새 전통을 실현하고 있는 이명애 섬유공예가의 이야기이다.

그녀의 한옥공방을 들어서면 마치 갤러리 또는 한옥 호텔을 연상시키는 멋스러운 인테리어들이 눈에 들어온다. 툇마루에 놓인 실타래, 유리창호 너머로 보이는 베틀과 카펫, 문틀에 살랑거리는 가리개와 정돈된 마당까지, 어느 것 하나 아무렇게나 놓인 것은 없어 보였다. 소품들은 의도된 듯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들로 방문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사로잡았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알록달록한 실타래와 시원한 마당 위 파란 하늘을 하염없이 감상할 수 있는, '색의 치유'를 건네는 공간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북촌 11번가를 오르다가 다리가 풀리면 잠시 앉아 쉬고 싶은 딱 그런 곳, 직물놀이공방과 운영자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직조에 대한 스스로의 개성이 궁금한 때”

이명애 섬유공예가 이야기

직조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씩 발굴해간 나의 개성

공예를 전공했는데 섬유, 패션 소품에 관심이 많아서 졸업 이후 그 분야의 작업을 계속해 왔어요. 저는 서울 토박이여서인지, 전통 직조를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직조에 대한 외국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며 ‘이걸 어떻게 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원하는 섬유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소품을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해외에서 직기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당시 직조에 관해 요목조목 설명이 잘 된 책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외국 도서를 보면서 직기를 조립했죠. 국내의 전통 베틀을 이용한 직조가 있었지만, 무명이나 모시를 짜는 용도뿐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에 관한 정규 교육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조선대학교 한선주 교수님이 쓰신 책 『수직』(디자인하우스, 1995)이 나오게 되면서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재에 걸맞은 감각을 계속해서 발굴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직조는 처음에 외국 자료를 통해 공부했지만, 작업을 하다가 보니 국내의 면과 삼실 등을 원단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실을 염색하여 문틀에 다는 장식 발을 만들어보기도 하면서 우리 전통의 감각을 반영하게 되었어요. 특히 염색 기법을 가미하면 직물 고유의 느낌이 더욱 두드러져요. 이렇게 가공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찾는 과정들이 재미있어요.

염색도 해보고, 텍스처가 강한 패션 소품을 직접 만들고 하다가, 1980년대부터 공방 겸 갤러리를 운영했어요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났던 시기에 각 가정에 어울리는 핸드메이드 제품이 흥행했던 적이 있어요. 원목가구도 등장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섬유 제품들을 주부들이 많이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벽걸이, 매트류, 카펫류 등의 소품을 주로 작업했어요. 가구 업체들과 함께 영업도 하고, 물건도 배달했었지요. 그렇게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서울시 문화상품 공모도 해보고,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전시도 했더니 어느새 세월이 삼사십 년 가까이 흘렀네요. 북촌문화센터에서 문화강사로 선발되어 교육도 하면서 그 다음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죠.

원래 창덕궁 앞에 작업실이 있었고, 청운동 쪽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한 17년 하다가 정리하고 쌈지길로 넘어갔죠. 거기서 작업하다가 여기 공공한옥으로 온 거예요. 이 공공한옥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그로부터 3년 뒤에 다시 한번, 그 다음 세 번째 지원하고서야 선정이 되어 2017년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한지가 벌써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저와 직물작업을 위해 하나씩 도약해나가는 과정들이 아직도 뿌듯합니다.



현대감각과 결합하는 전통섬유공예 ‘직물놀이’

섬유는 생활공예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물건에 미적가치를 부여하고 좋은 소재를 쓰면서 차별화 시키는 거죠. ‘직물놀이’는 생활공예 중 섬유와 관련된 저의 작업이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명칭입니다. ‘직물놀이공방’이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공방에도 사람들이 와서 예쁘고 쾌적한 공간을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소품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놓아두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 대부분을 기계로 생산하잖아요. 이곳에서는 전통기법을 활용하여 직물들을 한 올 한 올 짜면서 소재나 색상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대중성과 결합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작업 과정은 전통 기법과 거의 흡사해요. 재료만 다를 뿐이죠. 예전에는 마당이 넓어서 거기에 실을 날았지만, 요즘은 정경(整經 : 제직 준비 공정의 하나로 뭉쳐있는 실을 균일하게 배열하여 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형태의 도구가 나와서 비교적 편리하게 실을 날아요. 실을 날고 난 후, 그걸 필요한 길이만큼 정해 도투마리에 말아서 거는 거죠. 사침대에 실을 맞추어 끼우고, 종광바늘에 실을 통과시키고, 바디에 끼워 묶는 과정은 전통 기법과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올 한 올 집기를 이용해 직물을 짜는 거예요.

기존과의 차별성을 시도하는 가치

핸드메이드 제품을 기계로 만든 것과 차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똑같은 아이템에 소재도 비슷하다면, 대중적인 시선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수직으로만 다룰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어요. 컬러를 많이 쓰고, 기계로는 제직할 수 없는 재료들을 사용했죠. 특히 굵은 실은 기계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소재예요. 그렇게 수작업이 드러나도록 재료에 신경을 썼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웠어요. 섬유공예가가 양산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래도 수공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 수요는 아직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성품과 차별되는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작업을 해왔음에도 수공예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계속 숙제를 풀고 있어요. 스스로도 전통공예가라기 보다 그것을 차용한 현대의 섬유공예가라는 정체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해외에는 섬유 작가들이 많지만, 한국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명장 제도 등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와 제자들이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섬유 작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들을 민화의 풍속도처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생활공예'이거든요. 예부터 전승된 문화를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같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나아가야 이 분야에 더 많은 전통과 가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두루마기 스타일의 옷 공방에 걸려있는 옷들은 판매되기도 하고,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이명애 장인이 재단과 패턴을 담당하고, 미싱은 전문가가 담당한다.

누구에게나 일상 활용이 가능한 직조

직조 작업은 수백 개의 종광바늘로 작업하는 섬세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처음에 접근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베틀기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야를 시작한다면 1년 안에 기술을 다 습득할 수 있다고 봐요. 직조를 배우면 생활 속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생활용품, 패션 소품, 인테리어 용품 그리고 건축 조형물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6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아르테 포베라'와같은 미술품들도 생활 속 직물들을 이용한 작업이 대부분이었어요. 섬유는 붙임성이 좋은 소재이거든요. 저희 교육생도 취미로 접한 직조에 재미를 들여 70만원 정도하는 작은 직기를 사서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에게 맞는 직조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직조 문화가 새롭게 잘 이어졌으면 합니다.

섬유는 우리 일상 속 살결에 닿는 가장 가까운 소재 중 하나예요. 너무나 당연한 존재인데, 더 섬세하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물놀이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 나이에 SNS를 배워서 활동도 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다양한 색깔의 실 직물놀이 공방의 실들에는 전통 색이 가미되어있다. 색실의 염색은 물감 섞듯이 실을 섞는 '합사(合絲)'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짝이는 실이 돋보이는 직물들도 있는데, 이는 금사를 섞어 직조했기 때문이다. 한지를 가공한 실도 있는데, 이런 실들은 세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직물놀이’의 보편화를 기대하며

‘직물놀이’라는 고유의 카테고리가 보편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에 제자들의 작업이 더 활발해지고, 공방과 샵 등을 운영하며 전통직조 관광문화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해요. 그렇게 저도 후학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고 싶고요. 이 친구들의 젊은 감각이 저에게도 필요해요. 뒤처지지 않고 계속 창의적으로 나아가려면 시대에 맞는 감각들과 교류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고유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저의 ‘생활’인 직물을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고, 실을 나를 것 입니다.

직물놀이 공방의 직물들 손으로 직조한 직물들은 기계를 사용하여 직조한 직물들과 달리 공기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물이 주는 느낌이 매우 가볍다. 소재에 따라 간격이 다 다르게 직조되는 것도 직물놀이의 매력이다.



공공한옥 방문객들로부터 오는 즐거움

공방에 찾아온 사람들이 직물놀이 하는 걸 좋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한옥 대청에 베틀 하나만 놓아도 너무 예쁘잖아요. 와서 체험도 하고, 제가 꾸며놓은 공간에 앉아 쉬면서 전경을 감상하는 그런 분들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작은 것에도 큰 호응을 해 주는 방문객들 덕에 보람을 느낍니다.

공공한옥에 들어온 것 자체가 노력한 결과물이죠. 가회동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앞으로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공방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물놀이공방

직물놀이공방은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직조방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섬유공예를 만나 볼 수 있다.

전시되어 있는 전통 수직기(手織機)로 직조 시연을 통해 전통 직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섬유공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공방에서는 직물을 활용한 간단한 섬유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전문 교육강좌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손뜨개 무료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북촌로 11가길 14
운영시간 11:00~18:00(일, 월 휴관)
전화 010-3326-5383
홈페이지 www.instagram.com/jigmulnori_workshop/

체험 프로그램

키링, 모빌 등의 작은 악세서리부터, 티코스터, 테이블매트 등의 인테리어 장식품 제작으로 직물공예의 기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직물놀이공방 1 Day 클래스

수직 키링, 수직 종 모빌, 헤어악세사리, 코사지 등 작은 악세서리를 직접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50,000원 – 약 1시간 30분 소요

• 직물놀이공방 2 Day 클래스

티 코스터, 인테리어 장식품을 등을 직조방식으로 제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00원 – 총 2회, 회당 2시간 소요

외부 협력 방향

전시
베틀체험 및 작품 판매

※ 유의사항
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 예약 바랍니다.

심화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손뜨게, 수직물 및 현대 직기를 사용해 섬유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 힐링 수업(초급, 중급과정)

수강 시간 및 비용 : 1회차(3시간) 기준 2회에 150,000원
(재료 및 부자재 포함, 위빙프레임 무료 대여)

• 직조 베틀(초급, 중급, 고급과정)

시간 및 비용(초, 중급) : 1회차(2시간) 기준 4회에 300,000원
(실재료비 포함)

초급
입문자 코스로 기본 사용법과 응용 및 마감법까지 혼자 할 수 있도록 수업진행. 기본테크닉 3~5가지로 실용적인 아이템을 만듭니다. (장식품, 패션소품등) (실재료비 포함)

중급
초급 코스를 수료한 후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이 들어간 패턴을 배웁니다. 위빙프레임 경사실에 패턴을 구성하여 나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작업 진행

고급(중급수료)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수업진행. 전공생 가능 (재료, 부자재, 수강시간 및 비용 별도 문의)

